경제학원론

Ⓐ

(1번~20번)

(7급)

시행일	2017.6.24.	해설작성	2017.6.27.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작성자	잘하고있잖아 (다음카페 구꿈사)

1. [답 ③] 난도 : 하

① [X]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으며, 무차별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은 곧 이행성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한다.
② [X]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며,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인 경우는 우하향의 직선, 완전보완재인 경우는 L자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④ [X] 매연, 소음 등 많이 가질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를 비재화(bad)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내지만 비재화의 경우는 그 특성상 예외적으로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2. [답 ④] 난도 : 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본원통화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협의통화 M1 = C x D로 표시되는데, 이 문제는 C(현금)이 100만원 줄어들고 D(요구불예금)이 100만원 늘어나는 경우이다. C와 D의 증감량이 정확히 상쇄되어 협의통화 M1도 변화가 없다.

3. [답 ①] 난도 : 중

ㄴ : [X]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된다고 최대의 효용상태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ㄷ : [X]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에서 생산된 상품의 조합을 적절히 배분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수준의 조합은 효용가능경계(UPF)가 아니라 효용가능곡선(UPC)이다.

4. [답 ①] 난도 :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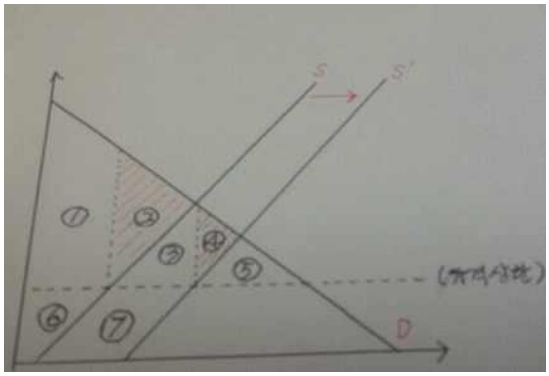
R&D 모형에서 지식은 배제성을 갖는다. 정확히 설명하면, 지식은 초기에 배제성을 갖지만 지식의 축적에 따라 점차 비배제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①과 같이 말할 수는 없다.

♨〈해설자 주〉
이 파트를 '솔로우 모형과 기타모형' 식의 이분법으로 뭉개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학도 그렇지만 경제학에서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아주 중요한 출제용 키워드이고, 수많은 기출문제들을 보면 많은 출제자들이 이 두 단어에서 주체할 수 없는 범죄유혹(?)을 느끼는 듯합니다. 행정학과 경제학에서는 툭하면 그 두 단어를 서로 뒤바꾸거나, '비(非)'를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공부하다 이 두 단어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긴장해야 하고, 시험장에서 이 말이 보이면 그 선택지부터 강하게 의심해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5. [답 ④] 난도 : 중

음악을 트는 경우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은 250, 틀지 않는 경우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이 200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음악을 틀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어떤 식으로든 음악을 틀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6. [답 ①]　　난도 : 상



① [O] 종전후생손실(②) 〉 이후후생손실(④)
② [X] 시장거래가격은 불변
③ [X] 종전공급자잉여(⑥) 〈 이후공급자잉여(⑥+⑦)
④ [X] 종전소비자잉여(①) 〈 이후소비자잉여(①+②+③)

7. [답 ③]　　난도 : 중

① [O] 한계저축성향이 큰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작은 것이고, 투자승수는 작아진다.
② [O]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면 현재 산출량이 완전고용 산출량에 미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실업 및 유휴설비 상태이다.
③ [X] 완전고용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이를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하며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
④ [O] 정부지출승수는 조세승수보다 크다.

♨〈해설자 주〉
경제학 말문제를 풀면서 늘 느끼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경제학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8. [답 ②]　　난도 : 중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을 표로 바꾸는 일이다.

	A국	B국
X 재	2	2
Y 재	10	40

따라서 $(\frac{P_X}{P_Y})_A = 5$, $(\frac{P_X}{P_Y})_B = 20$ 이다.

즉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따라서 A국이 B국에 X재를 수출하고 B국이 A국에 Y재를 수출하는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X재 1개가 Y재 5~20개 사이로 거래될 때에 무역이 발생할 것이다.

9. [답 ①]　　난도 : 하

IS곡선은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 경우 이자율이 상승한다. 먼델-플레밍 모형에서는 이러한 경우 해외자본이 유입되는데, 이로 인해 외화유입이 증가하고 환율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화를 매입하게 되고,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10. [답 ②]　　난도 : 상

B사는 어떤 경우에든 '나' 또는 '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가' 또는 '다' 택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하는 A사는 자신의 이윤이 더 크고 경쟁상태 B사의 이윤이 더 작은 '나'안이 선택되도록, 그림에서 위쪽 경로를 택할 것이다. B에게는 '라'안이 가장 해피하지만 '가' 또는 '나'만 선택가능한 이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안을 선택하게 되고, 즉 '나'점에서 내쉬균형이 형성된다.

11. [답 ②]　　난도 : 중

$$Y = C + I + G + NX$$
$$C = 250 + 0.75(Y - T)$$
$$T = aY$$
$$I = 750,\ Y = 5,000$$

정부재정이 균형예산이란 의미는 $T = G$
상품수지(무역수지)가 균형이면 $NX = 0$

주어진 값들을 식에 대입하면

$$5000 = 250 + 0.75(Y - aY) + 750 + aY + 0$$
$$4000 = 0.75 \times 5000(1 - a) + 5000a$$
$$250 = 1250a \qquad \therefore\ a = 0.2$$

12. [답 ④]　　난도 : 중

① [X] 이미 체결된 계약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은 회수불가능이므로, 미래에 지출하더라도 매몰비용이다.
② [X] MC곡선은 AC곡선과 AVC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③ [X] 한계수확체감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MC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이다. 즉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13. [답 ④]　　난도 : 하

GDP는 중간생산물을 제외한 최종생산물들의 가치의 합이며, 이 문제에서 최종생산물은 밑줄 친 부분과 같다.

2020년도에 어떤 나라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여 그 중 반을 소비자에게 1,000억원에 팔고, 나머지 반을 1,000억원에 제분회사에 팔았다. 제분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 그 중 절반을 800억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나머지를 제빵회사에 800억원에 팔았다. 제빵회사는 빵을 만들어 3,200억원에 소비자에게 모두 팔았다.

14. [답 ④]　　난도 : 중

공리주의적 견해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의 총합이 최대일 때를 이상적인 상태로 본다. 형과 동생의 효용 합이 가장 높아지는 상황은 형이 1만원(효용 60), 동생이 4만원(효용 50)을 가졌을 때이다. 즉 형이 동생에게 4만원을 주는 경우이다. (※ 양쪽 소지금의 합은 언제나 5만원이라는 제약조건이 따르며, 착각 주의!)

15. [답 ①]　　난도 : 하

피셔방정식 $i = r + \pi_e$에서, r이 서로 동일하고 A국의 i가 2% 더 높으면,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π_e)도 B국에 비해 2% 더 높다. 즉 A국의 통화가치가 B국에 비해 2%만큼 떨어질 것이다.

16. [답 ③]　　난도 : 상

$r = 0.1$일 때, 자본 1단위 늘릴 때 증가하는 매출량은

$$P \times \Delta Q = P \times MP_k = 200 \times (50 - 0.1K)$$

자본 1단위를 늘릴 때 증가하는 비용(자본임대료)은

$$(r + d) \times 10,000 = (0.1 + 0.05) \times 10,000 = 1,500$$

기업은 이 두 값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을 한다.

$$200 \times (50 - 0.1K) = 1,500$$
$$0.1K = 42.5 \text{ 에서, } K = 425$$

$r = 0.05$로 하락하면
자본 1단위를 늘릴 때 증가하는 매출량

$$P \times \Delta Q = P \times MP_k = 200 \times (50 - 0.1K)$$

자본 1단위를 늘릴 때 증가하는 비용(자본임대료)은

$$(r + d) \times 10,000 = (0.05 + 0.05) \times 10,000 = 1,000$$

기업은 이 두 값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을 한다.

$$200 \times (50 - 0.1K) = 1,000$$
$$0.1K = 45 \text{ 에서, } K =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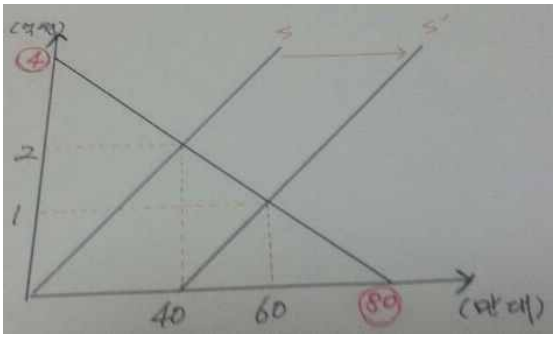
실질이자율의 감소에 의해 25만큼 자본량이 증가하였다.

♨〈해설자 주〉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미시경제학에서 대부분이(저 포함) 가장 힘들어했던 단원에서 출제되었다는 이유이고, 둘째로 7급에서 나온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만 CPA나 감평사 문제에서는 숫자만 바꿔서 여러 번 등장했었고, 일부 강사의 기출문제집에서도 이 문제를 숫자만 달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부하다 책에서 만났어도 안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제외시켜 버린 분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연필이 나가지를 않아 너무도 황망하여 얼어붙어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타 시험의 기출문제가 7급까지 번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제까지 나온 적 없다고 공부범위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알고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사람, 즉 수험기간 도중 한 번을 풀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니까요. 앞으로의 시험에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 [답 ③]　　난도 : 중

① [X] 기후악화, 인구감소, 국제유가상승 등 공급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A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이 경우 P(물가)가 오르고 Y(산출량)가 모두 감소한다. 산출량이 감소하면 실업률도 증가하며, 물가와 실업률은 상충관계가 아니다.
② [X]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하락시킨다.
③ [O]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적응적 기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④ [X] 재정확대정책은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며, P와 Y가 모두 상승한다. 이는 즉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필립스곡선은 물가와 실업률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인데, 이 경우 필립스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필립스곡선을 따라 균형점이 좌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18. [답 ③]　　난도 : 상



선택지들을 슬쩍 보니, 온통 잉여 어쩌고 한다. 그러니 이건 각 영역의 면적을 구해야 할 판이고, 그러자면 재빨리 절편부터 구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원래의 균형이 (40, 2)이고 시장개방 후의 새 균형이 (60, 1)인 것에 착안하면, 수요곡선의 x절편과 y절편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각각 80과 4임을 재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① [X] 국내소비자 잉여는
$\frac{1}{2}\times 40\times 2=40$에서 $\frac{1}{2}\times 60\times 3=90$으로 증가
생산자 잉여는
$\frac{1}{2}\times 40\times 2=40$에서 $\frac{1}{2}\times(40+60)\times 1=50$으로 증가
② [X]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위 그림을 참조하여 계산하면 140
③ [O] 국내 소비자 잉여는 40에서 90으로, 2배 이상 증가
④ [X]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140만큼, 국내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50만큼 증가

♨〈해설자 주〉
사실 이 문제를 맞히려고 이 모든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해설지 작성이니까 이렇게 푼 것일 뿐입니다. 선택지 ①을 계산하다 보면 국내소비자 잉여가 40에서 90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그러면 허탈하게도 이 문제의 답은 ③인 것을 바로 알며 나머지 계산은 전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1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10분 가까이 걸리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9. [답 ④]　　난도 : 중

$$P=64-2Q,\quad PQ=64Q-2Q^2$$
$$MC=24\text{(일정)}\text{이므로}\quad TC=24\times Q$$

$$\text{이윤}\ \pi=PQ-TC=40Q-2Q^2$$
$$\text{이윤극대화가 되려면}\ \frac{d\pi}{dQ}=40-4Q=0$$
$$\therefore\ Q=10\ \text{이고, 시장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44$$

생산량을 똑같이 나누는 A, B 두 기업은 각각 5만큼 생산하며
$$\pi_A=PQ_A-TC=44(5)-24(5)=100$$

20. [답 ②]　　난도 : 하

① [O] 이자율을 높이면 기업은 임대료 부담으로 자본설비를 늘리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는 감소하고 총수요(AD)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산출량 Y가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실업이 증가한다. 이 문제에서 '실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AS 곡선이 수직이어서 실업률에 변화가 없는 예외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X] 자연산출량이 증가하려면 기술진보, 인구증가, 천연자원 발견 등 공급측에 호재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확대 정책은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뿐이며, 자연산출량에는 영향이 없다.

③ [O]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하면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며, 이 경우 P와 Y는 모두 증가한다.

④ [O] 국제유가상승이란 공급측 악재가 발생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D곡선은 제자리에 있으므로, 공급측에 호재가 발생하여 A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계속 침체상태가 될 것이다.

♨ 〈총 평〉

상6-중8-하6 정도로 이번 경제학의 난도는 균형있게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별력은 두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출제자와 편집자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다만 경제학은 대개 시험시간 종반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앞의 국어 · 국사 등에서 멘붕이 온 상태로 경제학에서 과연 정상적 실력발휘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제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7급 경제학이 최근에 계속 쉽지 않은 난도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서울시7급 경제학이 쉬웠다고 '서7경제학은 쉽게 나오니까...' 하는 가정 하에 공부범위를 잡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차피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매년 바뀌고, 그분들이 작년에 쉽게 냈으니 올해도 그 정도로 내주자, 이러진 않습니다. 바로 전년도 문제가 어찌되었건, 내 시험은 쉽지 않게 나온다고 전제하고 공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어서 잊어버리고, 두 달 후에 국7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쉬고 또 전력질주하실 수 있어야겠죠. 망각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건 잊어버리고 잊어야 하는 건 쉽게 잊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 과연 망각이 신이 준 선물이 맞긴 한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외치자니 제 자신이 참 부끄럽지만요...

수험생 여러분,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돌보시고, 이 해설을 보아 주신 여러분들께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Produced by : 잘하고있잖아